



# 빛의사람들

2018.5.

273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 02)921-5093 FAX : 02)921-7847 / E-Mail :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 www.catholic-correction.co.kr



벤베누토 티시의 '예수님의 승천'  
(The Ascension of Christ By Benvenuto Tisi, 1510-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 2018년도 남부구치소 1기 집중인성교육(1회차)

3월 27일(화)~30일(금)까지 총 4일간 남부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집중인성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총 23명의 수용자 형제들이 참석하였고, 윤미숙 베로니카 선생님(그림 에니어그램 연구소 소장)이 진행하는 그림 에니어그램 강의에 높은 집중도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림 에니어그램은 자신이 그린 그림에 나타나있는 심리상태를 찾아내고,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입니다.



### 각 교정시설의 세례식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있었던 교정시설에서의 세례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께 전합니다. 3월 27일(화) 현대일 신부님의 집전으로 서울구치소 여사에서 2명의 자매가 세례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 금요일인 3월 29일에는 남부교도소 훈련원에서 이상원 신부님의 집전으로 1명의 형제가 세례를 받게 되었고, 4월 3일(월)에는 남부구치소 여사에서 이상원 신부님의 집전으로 2명의 자매에게 세례성사를 주시어 하느님의 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교정사목의 신부님들께서는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전의 삶을 변화시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된 형제자매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듬뿍 내려, 주님의 자녀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4월 후원회원 월례미사

4월 2일(월) 부활 팔일 축제가 시작되는 월요일에 교정사목 후원회원 월례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이번 월례미사는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창립 48주년 기념일로 교정사목의 이사장이신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날 강론은 이상원 신부님께서 “주님께서 부활하시어 제일 먼저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두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그분이 붙잡혔을 때부터 죽음까지 마음으로 함께 하였다. 그 때문에 그녀들은 제일 처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교정사목의 48주년은 주님의 무덤을 찾은 두 여인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손가락질 당하는 이들을 찾아가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셨던 교정사목의 후원자, 봉사자 덕분이다. 그 모든 분에게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립 48주년을 맞이하여 10년, 20년, 30년이 된 봉사자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습니다. 유경춘 주교님께서 직접 감사패를 수여해주신 후에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도 오랜 시간 교정시설 봉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며, 후원자와 봉사자들의 수고와 기도, 동참이 없었다면 48년이라는 시간은 어려웠을 것이다. 교정사목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린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 함께 살아가자

현대일 루도비코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신부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마태 25,36)라는 예수님 말씀을 곱씹어봅니다. ‘세상 창조 때부터 준비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갈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너희는 주일미사 꼬박꼬박 참석했다, 판공성사 빼먹지 않고 잘했다, 묵주기도 몇 만단 했다, 혹은 십계명 잘 지켰다,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고 상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뽕혀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갔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것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가서 무엇을 잘했기에 칭찬해주는 게 아닙니다. 가서 영치금을 좀 많이 넣어 주었기에도 아니고, 남들보다 맛난 떡이나 간식을 마련해 왔기에도 아닙니다. 가슴에 팍팍 와 닿는 멋진 말을 해서, 그렇게 죄인을 많이 회개시켜서, 비신자들을 많이 미사에 참석하도록 하게 하고, 또 세례를 많은 사람에게 주어 신자수 증가에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도 아닙니다. 찾아 준 것만으로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억울하게 들어오신 분만이, 가난해서 벌금을 못낸 분만이, 혹은 우리 천주교 신자만이, 내가 잘 아는 사람, 죄질이 괜찮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아니라, 감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이요, 그러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최후의 심판에서 의인으로 선택받게 됩니다.

자꾸 유혹에 솔깃하게 됩니다. 업적을 쌓고 싶어 하는 마음과, 내 맘에 드는 그리고 내 말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만 잘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라는 예수님 말씀은,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나에게 해 준 것이다”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행동 방법이라는 것, 교정사목은 “너랑은 못살겠다. 맘에 드는 우리끼리만 살아야지, 넌 저기 시설로 가.”라는 유혹과 “나 이런 것도 해, 대단하지?”라는 자기 교만의 유혹을 거슬러, “너 역시 예수님이야, 우리 함께 살자”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임을 다시금 되새기며 유혹을 이겨봅니다.

5월입니다. 전례력을 펴보니, 서로 다른 민족의 언어를 알아듣게 도와준 성령이 내려오신 성령강림대축일, 서로 다른 위격이 하나의 하느님이시라는 삼위일체대축일을 지내게 되네요. 5월 31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방문축일’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다른 처지 속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 속에 있는 하느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성모님과 엘리사벳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처지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성모님과 엘리사벳과 같이 서로 각자를 존중하면서도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일치할 수 있도록 청해봅니다. ■



## 카인

현대일 루도비코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신부

“카인”이라는 이름은, ‘얻다’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하와가 카인을 낳고,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 아이를 얻었다”(창세 4,1)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지만,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심에 카인은 몹시 화를 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죄의 시작을 묵상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합니다. 아벨은 양치기였고, 카인은 농부였다고 합니다. 서로의 처지가 다르고 그 다름 속에서 받은 하느님의 은총과 능력이 다를 터인데, 그리고 그 처지에서 서로 노력한 바가 다를 터인데, 그 결과를 단순히 비교하면서 그 결과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카인의 어머니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자식이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카인이라 이름 붙였는데, 막상 카인은 자신의 삶에서 얻은 것에 감사드리기보다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신세에 대해 한탄하고 화를 낸 것이지요.

아벨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가 같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고 비교하였던 것이 카인의 죄의 첫째 뿌리였다면, 둘째 뿌리는 하느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타인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내 마음과 같아져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도 잘못일 텐데, 하느님의 뜻을 좌우하고 싶어하는 것, 하느님이 내 제물, 내 노력을 기쁘게 받아줘야 하고, 하느님의 계획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큰 오만입니다. 하느님을 주님, 주님이라 외치면서, 얼마나 자주 하느님을 마치 종처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했던가요.

‘재는 저렇게 잘나가지?’ ‘하느님은 왜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축복을 하지 않지?’ ‘내 인생은 왜 이 꼴이람.’ 비교와 시기, 게다가 하느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카인에게 하느님은 경고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창세 4,7) 화가 나서 원망하는 카인을 걱정하시는 하느님은 카인에게 충고하십니다. ‘얼굴을 떨어뜨리는’ 카인에게, 얼굴을 들 수 있도록 옳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 얼굴을 드는 것, 하느님과 대면하는 것은 하느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가 나서 하느님을 외면하는 카인에게 옳게 행동하여 나와 함께 하자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과 조건에 핑계를 대면서 나의 죄악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옳게 행동하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옳게 살아 당당히 얼굴을 들고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그렇지 않으면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죄악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악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는 하느님의 충고는 너무나 와 닿습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카인은 아벨을 “뜰에 나가자”라고 꺾어내어 죽입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으로 은밀한 곳,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무도 없어서 서로가 서로를 더 의지해야 하는 곳에서 상대방을 죽입니다.

범죄가 일어난 후 하느님께서 카인을 부르십니다. 아담의 죄 이후에, 하느님께서 아담을 직접 찾으셨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 그러나 카인의 죄 때에는 카인을 직접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카인에게 죽은 아벨을 찾으십니다. 말을 건네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간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형량을 줄여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등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에서건, 혹은 영적인 갈등 때문이건 내가 하느님을 찾지만, 그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먼저 부르고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하느님이시지만, 억지로 당신 앞에 카인을 끌어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카인에게 회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카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창세 4,9)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느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거부합니다. 통명스러운 거짓말은 하느님과의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죄를 지은 카인에게 벌이 주어집니다. 땅의 수확물을 거두는 농부인 그가, 하느님 축복을 만족하지 못하여, 땅을 홀로 차지하고자, 땅에서 형제를 죽였는데, 땅에서 그 형제의 피가 울부짖고 있기에, 카인은 땅의 수확도 얻지 못하고,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죄는 그 자체로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카인은 화를 통해서, 그리고 살인을 통해서 형제와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여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이 관계의 단절이 그 죄로 인한 벌입니다. 형제와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투 그리고 땅과의 관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죄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계를 끊어지게 합니다. 그게 벌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당신 보호의 표지를 찍어주십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로 하느님의 관계를 끊지만, 하느님은 그 관계를 끊지 않으십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일곱 갑절로 양값음을 받을 것이다.”(창세 4,15) 게다가 이어지는 성서구절은 카인이 하느님 은총의 표지인 자손을 변창하는 이야기를 적어놓습니다. 보호의 표지는 카인을 살인하였을 경우, 일곱 배의 양값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자손손 그 양값음을 받는다는 것인데, 복수의 사슬이 죽음의 문화를 낳는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은 아닐까합니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해’라며 모욕하고, 인격살인하고, 사형제도를 옹호하며, 그리고 전쟁의 정당화까지 하는 오늘날에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카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떠오르게 합니다. “‘살인해서는 안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마태 5,21) ■





## 엄마

장명렬 켜마 같가니 / 동부구치소 남사 대표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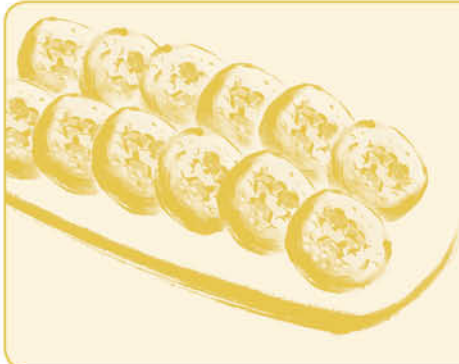
오늘은 목요일, 저에게 목요일은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파도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날은 개인적인 약속이나 행사도 없어야 합니다. 이날은 오직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것이 저의 일과이고 생활이자, 하느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또 어떤 새로운 형제들이 나올까’ 하며 아침기도를 시작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형제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발걸음은 동부구치소로 향합니다. 이렇게 목요일에는 교정사목 신부님 그리고 수용자 형제, 봉사자 형제자매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둘째 주·넷째 주 금요일은 동부구치소 내에 있는 천주교 전용 교리 지도실에서 자매상담이 있는 날입니다. 이날은 예비 신자와 세례를 받은 형제들과 소그룹을 이뤄 복음나누기와 생활 나눔을 하는데, 미사 때에는 나눌 수 없는 개인적인 대화를 이때만큼은 함께 원으로 둘러앉아 기도와 성경말씀과 함께 그동안 생활하며 느꼈던 것에 대해 그리고 수감생활을 하며 들었던 반성의 마음, 부모님께 그리고 가족들에게 들었던 미안한 마음들을 성경 말씀을 토대로 나눕니다. 서로 진실된 나눔을 나누다 보니 어느 형제는 마치 막내아들같이 마음이 더 갔고, 집에 와서도 기도 속에서 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는 나눔 중에 자신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런 곳까지 면회를 오시게 하여 ‘정말 죄송했다’는 말을 하며 담장 밖에 있었다면 신앙을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곳에 와서 우연한 기회에 천주교 집회에 나왔다가 지금은 세례를 받고 기도 생활을 하는 자기 모습에 본인 스스로도 놀랐고, 출소 후에는 전과는 다르게 생활하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며 꼭 성당을 찾아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겠다는 한마디가 저에게는 감동이며 힘이고, 보람이었으며, 주님 안에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계기였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드릴 일이지만,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저를 써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자녀들은 모두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담장 안에서 새로운 자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아들이고, 동생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미처 알지 못 했던 것, 부족했던 부분들을 함께 대화하고, 손을 잡아주며 수용자 형제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이것이 큰 보람이며, 행복입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꾸지람을, 쓴소리를 해주는 그리고 사랑이 담긴 눈빛과 따뜻한 손길로 보듬어주는 엄마가 되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 출소 후에도 나쁜 길로 향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ㅁ







## 김밥 속 愛

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홍보부

따뜻한 봄별이 쏟아지고 생명이 마구 피어나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어머니인 성모님의 사랑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성모성월입니다. 어머니, 엄마의 존재는 그 자체로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그 무한한 사랑에는 조건도 별로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것, 이 얼마 안 되는 조건마저도 온전히 당신 자녀들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머니는 세상 그 누구보다 편한 존재이고, 영원한 마음의 안식처이며 둥지입니다. 이 따뜻한 시기에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자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온 이야기는 사연의 주인공 A씨의 군 입대로 시작됩니다. 그가 이 사연을 작성한 시간으로부터 8년 전,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뒤로 한 채 의무경찰로 입대합니다. 그리고 입대한지 한 달 뒤 경찰학교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던 중 어머니와 면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면회를 약속한 뒤, 면회 당일이 되자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 더욱 늠름해진 모습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침 일찍부터 기상하여 군복을 다리며 각을 잡고 군화에 번쩍번쩍 광을 내면서 면회시간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드디어 면회시간이 찾아와 어머니를 기다렸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약속했던 시간이 훌쩍 지나가도록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면회는 무산되고 A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생활관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 약속했던 면회에 오시지 않은 것이 원망스럽고 서러운 마음이 들어 함께 생활하는 동기들 몰래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경찰학교의 교관이 생활관으로 달려들어와 A를 깨우며 다급하게 말하기를 그의 어머니께서 지금 면회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을 합니다. 깜짝 놀란 A씨는 황당한 표정으로 급히 면회실로 향했고, 그곳에서 어머니는 자신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기쁘게 반겨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반겨주시고는 사가지고 온 치킨과 집에서 손수 싸오신 김밥을 황급히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면회실에 코를 찌르는 쉼내가 가득 찹니다. 어머니께서 싸오신 김밥이 쉬어버렸던 것입니다. 전날 어머니께서 아들을 보기 위해 경찰학교 근처 역까지 오셨지만, 그 역에서 지갑을 소매치기를 당해 가지고 계시던 모든 돈을 통째로 잃어버리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계신 어머니는 모든 차비를 잃어버리셨고 경찰학교로 찾아가기 위해 행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워 결국 도움받기를 포기하시고 직접 아들을 찾아 걷기 시작하여 밤을 꼬박 새워 새벽에 도착하셨고 김밥은 쉬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A씨는 비록 쉼 냄새가 나는 김밥이지만, 어머니의 깊은 사랑에 감사함과 죄송함에 눈물을 쏟으며 맛있게 먹습니다. 어머니는 김밥이 쉬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맛있다는 아들의 말에 기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프도록 사랑하면 아픔은 사라지고  
더 큰 사랑만이 남습니다.

-마더 테레사-

\* 참고자료

장영훈 기자, 「군대 간 아들 눈이 '통통' 붓도록 울게 만든 장애인 엄마가 면회 싸운 '상한 김밥」, 2017.11.03 인사이트(www.insight.co.kr)





## 형형색색(形形色色)

윤미숙 베로니카 / 그림 에니어그램 연구소 소장

그림 에니어그램으로 18년 동안 1000번이 넘는 강의로 이곳저곳을 다니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림 에니어그램은 단순히 성격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자신을 발견하고 몰랐던 자신에게 말을 걸고 질문하게 만듭니다. 교정담당 수녀님의 초청으로 수용자 형제자매들과 에니어그램을 시작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곳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듯 저 역시 수용자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으로 사는 별종의 사람들일 것이다’ 그 편견과 선입견을 깬 첫 번째 강의의 은총의 순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첫 강의가 있던 날, ‘이분들이 내 강의에 관심이나 있겠어? 되도록 쉽게 이야기하고 시간 맞추어서 끝내도록 하자!’ 라고 잔뜩 긴장해서 강의를 끝냈는데, 형제님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들성들성 빠진 이 사이로 어눌하게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아직 늦지 않았겠지요?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겠지요? 제가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어 버릴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며 나에게도 희망이 있나? 정말 하느님은 나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막 울렁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마치고 사라지셨습니다. 그 때 제 가슴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건 삶의 큰 희망입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 뒤로 오랫동안 그 형제님의 눈빛이 제 강의에 힘이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의 형제님을 기억합니다. 쉬는 시간 중간 중간 음악을 틀곤 하는데 ‘선생님 상어송이란 동요가 있다고 하는데 한 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무슨 노래인데요?’라고 묻자 ‘5살 된 딸이 다음 주에 면회를 오는 데 그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싶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배워서 같이 부르고 싶어서요’ 그리곤 딸아이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는 그저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수용자 형제들의 그림에는 말로서 하지 못한 사연들이 보입니다. 아프고, 상처받고, 그림고, 이야기하지 못한 힘든 상황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의 색에서도 무채색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에는 꽃이 피고 잎이 자라나고 햇살이 비치는데 그들 마음에는 어둠과 절망과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줬다면 어땠을까?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줄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무지갯빛깔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은 밝은 꿈을 꿀 수도 있지 않았을까? 4일간의 남부 구치소 집중인성교육에서 저와 형제들은 기뻐하며 정말 열심히 함께 했습니다. 형제들도 스스로가 놀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흘러가며 꽃이 피고 햇빛은 따스하게 우리를 비추어줍니다. 햇빛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햇살 아래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랑으로 사는 것인지, 지금 여기서 새로 시작합니다. 담장 밖의 우리들, 그리고 담장 안의 형제자매들이 매일 깨어나고 매일 새로워지려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 보은(報恩)

†찬미예수님!

존경하는 신부님께.

저와 같은 죄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감사 또 감사합니다.

어머님을 하느님 품에 보내드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지독히도 힘든 사순시기를 보내고 즐겁고 기쁜 부활시기를 지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동부구치소에 들어온 이후에 최고로 기쁜 순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완전 통회에 이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신부님이 보내 주신 사랑에 대한 은혜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겠지요. 신부님을 만난 이후 저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고 힘들게만 해 드렸는데...

제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출소하는 것이 저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곳에서 신부님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사람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신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정말 사랑합니다.

2018년 3월 31일

구○○ 프란치스코 다미안 콜베

받은 사랑과 은혜를 회개와 통회로 갚겠다는 형제님의 다짐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더 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 다시 바다에서

열여섯 살에 처음으로  
환희의 눈물 속에  
내가 만났던 바다

짜디짠 소금물로  
나의 부패를 막고  
내가 잠든 밤에도  
파도로 밀려와  
작고 좁은 내 영혼의 그릇을  
어머니로 채워주던 바다

침묵으로 출렁이는  
그 속깊은 말  
수평선으로 이어지는 기도를  
오늘도 다시 듣네

낮게 누워서도  
높은 하늘 가득 담아  
하늘의 편지를 읽어주며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게 영원을 약속하는  
푸른 사제 푸른 시인을  
나는 죽어서도  
잊을 수 없네

-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 -

마침내  
달 (4)

양상우  
도로테아

이름에  
드리는  
기도







## 후원알림마당

### 안내 말씀 드립니다

- 후원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 반송우편물로 낭비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CMS 및 자동이체 후원을 권장합니다.

본 위원회는 금융결제원과 협의하여 전화신청만 하시면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 결제되는 후원금 자동 납부 방식인 CM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로 용지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빛의사람들’ 소식지를 이메일 발송해드립니다.
-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기 어려우시거나 우편비용의 절감을 원하시는 후원회원님께 이메일 발송을 해드리오

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http://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사업부: 02)921-5094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 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절 취 선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 2018년 6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저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일시 : 6월 4일 월요일 오전 10:30

\* 장소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6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3/11 ~ 4/13)

3월~4월에는 이영희 율리안나, 김태수 소화데레사, 최진숙 프란치스카, 김주경 세라피아, 양웅필 프란치스코, 김현태 글라라, 고은혜 안젤라 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하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행사 알림

- 5월 14일(월) 후원회원 피정 &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5월 14일(월)~18일(금) 기쁨과희망은행 19기 창업교육

### 기쁨과희망은행 19기 창업교육 안내

- 지원대상 : 출소한지 3년 이내인 자로서 서울/경기/인천 지역 창업 예정자
- 서류접수 : 2018년 4월 16일(월) ~ 5월 11일(금)
- 문 의 : 02-923-4726

###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 SC 제일은행 계좌 해지 안내

SC제일은행(109-10-276339) 후원계좌를 해지합니다. SC제일은행을 통해 후원하시는 후원회원분들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사업부: 02-921-5094)

## 후 원 신 청 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원치않음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2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